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모양**6/ 30 월요일****아침의 누림****롬 6:3**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고전 1:30

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롬 8:1-2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전 15:45, 47

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니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오셨습니다.

고후 5:17

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출 14:13, 28

13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굳게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성취하실 구원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본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입니다.

28 물이 다시 돌아와 병거들과 기병들,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온 파라오의 모든 군대를 덮어 버렸으므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심지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았다. 침례는 하나의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어 그분을 우리의 영역으로 삼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것을 말하는 로마서 6 장 3 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기적인 연결,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상을 뒷받침하는 가장 분명한 근거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를 누리거나 체험할 수 없다. 우리는 아담이라는 한 인격 안에서 태어났지만, 믿고 침례 받았을 때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인격 안으로 들어갔다. ...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일부가 되었다. ... 그러므로 침례는 지극히 중요한 체험이다. 그것은 그 침례 안에서 전이(轉移)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 이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아 한 영역, 한 범위에서 나와 다른 영역, 다른 범위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첫 사람 아담(고전 15:45 상, 47 상)에게서 나와 둘째 사람(15:47)이신 그리스도(고전 1:30, 갈 3:27)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 그리스도는 우리가 침례 받아 들어가는 하나의 영역이자

범위이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의 누림이시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299, 57-58 쪽)

오늘의 위를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비록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침례에 의해 우리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육체에서 그 영으로 변형되었다. ... 우리는 이와 같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됨으로써 아담에게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을 때, 아담의 일부인데서 그리스도의 일부인 데로 옮겨졌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 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으로 침례 받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과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분별시켰고, 우리의 타고난 생명, 옛 본성, 자아, 육체, 심지어 우리의 역사 전체를 끝냈다. 로마서 6 장 3 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침례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이다. ...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고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는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이 하나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효능 있는 죽음의 요소를 지닌다. 그러므로 믿는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을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는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 자신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존재에는 그분의 효능 있는 죽음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그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존재의 성분들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다.

아담 안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아담 안의 죽음을 싫어한다. ... 그리스도의 죽음은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우리는 그 안에 안식하며 거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믿는 이가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도 있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가! 심프슨(A. B. Simpson) 이 지은 찬송에는 “주와 함께 죽었으니 놀라운 안식 아닌가” (찬송가 365 장) 라는 가사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안식과 승리를 찾을 수 있다.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죽음의 과정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침례를 통해 죽음에 넣어진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동일시되어 물에 잠겨 장사된다. 그는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실질적인 체험 안으로 들어간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299, 59-6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299

7/1 화요일

아침의 누림

롬 6:4, 5:17

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골 2:12

12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생긴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롬 5:18, 21

18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롬 12:2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롬 8:29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6 장을 읽는 대다수의 사람은 항상 짝막한 한 어구의 표현을 놓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과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파악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롬 6:3)이라는 표현은 눈으로 보고도 놓친다. ...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 동일시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 또한 죽었다.(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9 장, 17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침례의 생활이다. 한 면으로 침례는 성취되었고, 또 한 면으로 침례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침례의 생활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체험하면서 매일 그리스도의 죽음의 적용 아래 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안에 있는 성분이자 요소 중 하나이다.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죽음에 넘겨지는 체험을 할 것이다. 이것은 교리나 어떤 특정한 실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안에 포함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죽이는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로마서 6 장 4 절에서 바울은 장사(葬事)라는 사상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사 안에서 그분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자연의 영역에서는 죽음이 항상 장사 전에 오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장사가 죽음 전에 온다. 우리는 침례 받았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을 때,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직접 죽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

가령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다 하자.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 새로운 믿는 이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넣는 것이다. 그는 침례 받을 때 실제로 장사된다. 이러한 장사는 죽음을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는 것의 의미이다.

더욱이 부활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같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한다(롬 6:4). ...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지금은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같이 부활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한다. 이러한 생명의 새로움은 부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이신 생명 주시는 영과 매우 많은 관계가 있다.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길은 그 영이다.

우리는 물속에 잠길 때 죽음 안으로 들어가지만, 물에서 올라올 때 부활 안으로 들어간다. ...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 부활은 장래의 상태일 뿐 아니라 현재의 과정이기도 하다.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역 안에서 살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롬 5:17).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이 처리되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된다(8:29).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즉 침례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는 것과,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즉 그분의 부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임을 보아야 한다. ... 우리는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라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이상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매일의 생활과 집회에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살고, 처신하고, 행동하고, 일하며, 모든 것을 해야 한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299, 60-6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9 장

7/2 수요일

아침의 누림

롬 6:5-6

5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을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갈 6:14

14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전 2:2

2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전 1:23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십니다.

로마서 6 장 5 절은 진리의 중요한 요점을 제시한다. 그것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란 믿는 이들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의 두 단계를 포함한다. 첫 단계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둘째 단계는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자랐다. 또한 면으로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즉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299, 6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6 장 5 절에 있는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이라는 어구는 4 절에 언급된 침례를 가리킨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이다. 침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자랐다. ‘연결되어 자랐다면’이라는 어구는 많은 번역자들을 힘들게 했다. 그러나 우리가 헬라어 단어의 의미에 충실하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연결되어 자랐다면’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누가복음 8 장 7 절에서 밀과 함께 자라는 가시나무를 말할 때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자랐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에 넣어졌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라기 시작했다. 이것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씨가 뿌려진 것이지만, 사실상 그 씨는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다. 물속에 넣어졌을 때 우리는 흙 속에 심어진 씨와 같았다. 침례는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흙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

바울은 침례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하나의 단계로 여겼다(롬 6:5). 침례 안에서 우리는 죽음 안으로 장사될 뿐 아니라 자라기 시작한다. 비록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것은 사실이다. 중요한 요점은 침례를 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자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생명에 관련된 일들이 항상 비밀인 것처럼 믿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라시는 것은 비밀이다. 침례는 모태에서 사람이 자라는

과정과 비슷한 일련의 성장 과정이다. ... 모태에 잉태된 태아가 자신의 부모와 같은 모양으로 자라는 것처럼, 침례 안에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믿는 이들이 물속에 들어가 물을 통과하는 순간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그 순간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침례를 마친 후,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 침례는 하찮은 것이 아니다. 침례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곧 그 영께서 침례 받은 믿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할 때, 우리가 전파하는 말 속에 그 영께서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우리는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가 여호와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뿐 아니라 말씀은 그 영이다(요 6:63).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물속에 침례 줄 때, 성령께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심으로써 이러한 침례를 존중하실 것이다.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고, 기도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받은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를 침례의 물 속에 넣어야 한다. 물속에 침례 받는 것은 그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받는다는 것, 즉 삼일 하나님과의 연결 안에 잠긴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시이다. 그가 이렇게 삼일 하나님 안으로 놓여지는 것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자라기 위한 것이다(골 2:19). 그러므로 새로 돌이킨 사람이 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침례의 효능을 믿고 즉시 그에게 침례를 주어야 한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299, 63-6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2 년, 2 권, 왕국, 20 장

7/3 목요일

아침의 누림

롬 11:24

24 대가 원래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라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면, 원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자기 올리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요 11:25

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요 1:4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 5:26

26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 안에 생명이 있으신 것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생명이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 6:39

39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렇습니다. 곧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입니다.

요 17:21

21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침례의 의미는 상당히 깊은 것이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침례 받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람들을 접촉할 때,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복음이 살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살아 계시는 영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 ...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말씀과 함께 일하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 후 우리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믿는 이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준다(마 28:19). 침례를 통하여 이러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299, 6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유명한 신약 강해자인 고데(Godet)는 그의 <로마서 주석 (Commentary on Romans)>에서 로마서 6 장 5 절에 계시된 ‘자람’이 접붙임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절을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이 된 것을 통해 (그분과) 하나 되고 같은 식물이 되었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다. 고데에 의하면, ‘자란다’는 말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의 생명, 성장, 삶의 여러 단계를 공유하도록 해 주는 유기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접붙임에 의해

이루어진 두 나무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한 나무는 다른 나무의 생명과 특성에 참여한다. 이러한 이해를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적용한다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졌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접붙임을 통해 그분과 하나 되어,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그분의 생명과 특성들에 동참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 안에서 자란다.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이러한 접붙임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 ... 이러한 접붙임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출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기능들을 부활시키며, 우리의 기능들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기능들을 풍성하게 하며, 우리의 온 존재를 적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일단 우리가 그분 안으로 접붙여지면,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으로 와서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한다. 그분의 생명은 부활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다. 그분은 창조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의 기능들을 높이시고, 우리의 온 존재를 풍성하게 하시고 강화하시며 심지어 적시신다. 이 새로운 생명은 두 생명이 하나로 접붙여진 생명이다. 이러한 연결 안에 승리, 생명, 빛, 능력,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신성한 속성이 있다. ... 이러한 접붙임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자란다. 그럴 때 부활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란다. 신성한 생명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공급을 준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겉으로 보기에 접붙임은 일종의 잘림 같지만, 사실상 이러한 잘림은 일종의

자람이다. 한 나무가 잘려서 다른 나무에 접붙여질 때, 접붙여진 이 나무에서 우리는 잘림과 자람 둘 다를 본다. 즉, 이 나무는 잘림으로써 자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장사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에 대한 그림이다. ... 침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침례에는 성장이 포함된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즉 침례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라고, 그다음에는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즉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자란다. 믿는 이가 합당한 침례를 체험할 때, 그의 안에 계신 신성한 영께서 옛사람을 그의 세상적이고 죄악된 요소들과 함께 죽음에 넣으신다. 그는 침례의 물에서 올라온 후에 새로운 사람으로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곧 그분의 부활의 새로움 안에서 살고 행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그는 매일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자라며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한다. 이것은 분명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체험과 누림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299, 66-6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1

7/4 금요일**아침의 누림****갈 3:27**

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마 28:19

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행 8:16

16 왜냐하면 그들 중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내려오신 적이 없고, 그들은 단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행 19:5

5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고전 1:13, 15

13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15 이것은 여러분이 내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주라는 명령과 그분께서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으로 끝난다 (28:19-20). 이 두 절은 심오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마태복음 28 장 19 절에서 삼일 하나님은 침례의 물에 비유되신다. 우리가 사람들을 물속으로 침례줄 때,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넣는다는 것을 상징한다.

갈라디아서 3 장 27 절은 ... 놀라운 절이다. 이 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이다. ...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동일한 개념이 로마서 6 장 3 절에서도 나타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덮고 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이 공허한 말에 따라 어떤 형식이나 의식을 행하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것은 주님의 신실한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실재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2 년, 2 권, 왕국, 20 장, 254, 25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3 장 26 절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27 절은 '이것은(for)'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말은 26 절과 27 절을 연결해 주며, 또한 27 절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임을 가리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27 절은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길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3 장 28 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서 2 장 15 절에 언급된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신성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결과적으로 한 새사람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새사람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새사람 안에는 우리의 타고난 존재나 타고난 기질이나 타고난 성격을 위한 여지가 없다. 이 한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골 3:10-11).

로마서 6 장 3 절에서 ...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으로 침례를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마태복음 28 장 19 절에 따르면 믿는 이들은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고린도전서 12 장 13 절에서 우리는 침례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이 절에 따르면, 우리는 또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다.

에베소서 2 장 15 절과 16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돌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절들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이가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상이 담겨 있다. 골로새서 3 장 10 절과 11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1, 245-24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1

7/5 토요일

아침의 누림

행 2:38

38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고전 12:13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고전 15:20-22, 25-28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1 죽음이 사람을 통하여 왔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하여 왔습니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25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왕으로서 다스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26 마지막으로 없어져야 할 원수는 죽음입니다.

2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복종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시키신 하나님은 그중에 들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28 모든 것이 그분께 복종하게 된 그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복종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침례와 관련해서 신약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마 28:19), 그리스도 안으로(갈 3:27),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롬 6:3),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고전 12:13) 침례를 받았음을 계시하고 있다. 이런 놀라운 침례를 합당하게 이해하려면 우리 존재 전체를 사용해야 한다. ... 그런 침례, 즉 신성한 이름과 살아 있는 인격과 효능 있는 죽음과 살아 있는 유기체 안으로의 침례는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위치에 둔다.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1, 247-24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침례의 의미에 대해 풍성하고 살아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 우리는 침례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을 물속으로 집어넣는 단순한 행위로 간주하면서 믿는 이들에게 의식적인 침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 ... 사람들이 침례의 의미에 관한 풍성한 말씀을 듣고 이러한 들음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면, 그들은 침례 받기를 간절히 원할 것이다. 그런 후 그들에게 침례를 줄 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가 그들을 물속으로 침례 줄 뿐 아니라 영적인 실재 안으로 침례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을 물속에 잠기게 할 때, 우리는 그들을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 잠기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은 그의 전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와 삼일 하나님의 유기적인 연결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 하나이며 삼일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갈 3:27)은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 위에 입는 것, 곧 의복이신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다. 침례 받을 때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잠기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살아 계신 영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수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그 영이신 그분 안에 잠기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잠길 때 그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그의 옷으로 입게 된다. 이것은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잡기고 그분으로 옷 입혀짐으로써 그분과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을 길이 없을 것이다. ...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도록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인 프뉴마(pneuma) 즉 그 영이셔야 한다. ... 우리는 하늘에만 계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프뉴마, 즉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 장 13 절에 의해 증명된다. 이 절은 우리가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다고 말한다. 여기의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다.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신 그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신성한 실재 안으로 침례 받으려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생명 주시는 영이셔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때마다,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러싸고 계신다는 것과 그들이 이 신성한 인격의 실재 안으로 침례 받고 잠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3 장 마지막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대해 말함으로 이 장을 끝맺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 우리는 다른 언어들로 말했는지 말하지 않았는지를 주의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를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는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옷, 덮개로 입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간증할 수 있다. 나는

내가 그분과 하나이고 그분께서 나와 하나이시라는 확신으로 가득하다. 나는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신성한 인격 안에 있다. 그리고 신성한 인격은 나와 하나이다.(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1, 251-25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8 권, 믿는 이들(2), 메시지 123

7/6 주일

아침의 누림

마 26:26-30

26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드십시오. 이것이 내 몸입니다.”라고 하시고,
27 또 잔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다 이것을 마시십시오.
28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29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30 그리고 그들은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나아갔다.

요 12:24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